

사설

'신체장애'와 '마음장애'

어릴적 고향 마을에 친하게 지내던 할아버지가 계셨다. 어른들이 모두 설교와 금제로 우리를 옥박지르고 있을 때 마냥 친구처럼 놀이주던 분이셨다. 노인성 치매인지, 혹은 유전적 박약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친지의 어린이었던 우리에게 그 같은 어른들의 '명명'이 아무래도 좋았을 것이었다.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인상을 찌푸리던 아무말도 아니라는 듯, '밥을 먹으면 나아!' 하셨다. 그것이 '밥'을 먹으면 철학적 연명인지는 철이 든 후에 알았다.

이것 비합리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된다.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 쓸모가 없듯, 생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은 인격적 존엄을 부여받지 못한다. 신화, 전설, 인성, 여우, 놀이, 나아가 종교같은 이들은 생산과 경쟁의 적이라한 지배 앞에서 여지없이 휩쓸려 버렸다. 불교는 원래 거지들의 종교 아닌가. 유럽의 수도원 조직도 구결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신종 산업사회의 그러나 사람들을 공장으로 몰면서 '부랑자에 관한 법률(Vagrancy Law)'부터 통과시켰다. 놀고 먹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을 강박하기 시작했다. 하여 한국의 불교도 고신 끝에 탄압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와 함께 그분도 행복하셨던 듯하다. 비록 돌보는 자식들이 없었지만 마음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자생적 생존능력을 잃은 노인들 그 품에 안고 키우고 있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싱거운 농을 건네기도 하고, 뒷골은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괴음을 들춰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자신들의 공간 밖으로 밀쳐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뉴스는 수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벌이는 소동을 비쳐 주었다.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자, 남보기 좋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명분이야 언제나 그럴 듯하다. 그 뉴스는 내 이러한 시절의 기억과 겹쳐 우리 사회의 섬뜩한 일면을 실감나게 일깨워 주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를 탓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그 서글픈 연출의 뿌리는 아주 깊다. 내 어린 시절의 고향사람들과 피켓을 든 수서의 주민들,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되, 사회적 연관의 기저를 이루는 코드가 달라졌다. 근대 산업사회는 경쟁과 효율의 원리 위에 서 있다. 비효율적

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된다.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 쓸모가 없듯, 생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은 인격적 존엄을 부여받지 못한다. 신화, 전설, 인성, 여우, 놀이, 나아가 종교같은 이들은 생산과 경쟁의 적이라한 지배 앞에서 여지없이 휩쓸려 버렸다. 불교는 원래 거지들의 종교 아닌가. 유럽의 수도원 조직도 구결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신종 산업사회의 그러나 사람들을 공장으로 몰면서 '부랑자에 관한 법률(Vagrancy Law)'부터 통과시켰다. 놀고 먹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을 강박하기 시작했다. 하여 한국의 불교도 고신 끝에 탄압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는 장애인에게 자발적 안전과 보호를 베풀지 않는 체계이다. 불인정한 현실을 바꾸려면 기저의 코드를 바꾸어야 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효율에서 균형으로, 합리에서 인성(人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이같은 지향을 공유하게 될 때 장애인의 문제는 궁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본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차갑고 배타적인 시선부터 거두어야 한다. 뒤에서 말할 수 있을 까. 나는 정상인가. 과연 누가 건강하고 누가 장애인인가. 현대사회에서 유용을 인정받는 내가 실은 가장 비정상적인 인격이 아닌지 사무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장애인들 또한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비상한 용기와 자존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 장애는 다만 불편할 뿐이다.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장애가 아니겠는가.

열린마당 문화계 관망록

복지·군법당 지원등 대부분 사회환원

도 후 <신홍사 주지>

지난 한해 신홍사를 찾은 참배객 및 관광객은 2백80만명으로 전국 관람료사찰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처럼 설악산에 자리한 신홍사에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사람이 많다보니 수행도량으로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오는 사람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왕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불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야 한다. 따라서 신홍사는 관람료를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신홍사는 지난해 속초에 9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학금 지급, 경로잔치 등 관람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사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있다. 물론 관광사찰에 걸맞는 포교에도 빠지지 않는다. 특히 군부대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군법당지원도 앞장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람료사찰이 호의호식하

공금으로 적립 중단 목적사업에 활용

종 광 <조계종 총회의원>

1천6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사찰과 정부당국은 문화재의 보호, 유지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정비는 물론 당해사찰의 불사 등 사찰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가 불교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우선 문화재관람료사찰은 대체적으로 신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회의원으로서 총정감사차 문화재관람료사찰을 감사한 적이 있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사찰이 역사와 규모에 비해 신도가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사찰의 경우 1천년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60명에 불과했다. 사찰이 수행도량이란 본분을 잃고 단순히 문화재를 위한 것으로 존재하

성지·성보 보존에 쓰고 쓰임처 공개

안 후 상 <불밀미술관 연구원>

불교의 성지가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대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통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함께 고개 내 부에서도 성보를 포교의 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이다. 모를지기 불교의 성지와 성보로 인해 2백여7천9백여 만원이라는 관람 수

입이 95년 한 해 동안에 발생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입이 아닐 수 없다. 선대 스님들의 덕택임과 아울러 우리의 전통은 '불교'라는 당연결의 원칙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 바로 교리의 근간인 '보시' 즉 '복지 문제'에 불교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싶다. 선대들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 얻어진 가치로 이제는 보다 근본 교리를 널리 펼

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관람료사찰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총수입의 절반이다. 몇몇 사찰 이외에는 대부분의 관람료사찰은 문화재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한옥으로 유난히 손질이 많이 간다. 보통 10여대가 넘는 대형전각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 관공지에 자리한 사찰은 특성을 기해야 한다. 사찰과 관광객, 지역사회가 일치되도록 연구 검토해야 한다. 대저산언이 발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관광지사찰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관람료로 인해 포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에 신도관심 등 사찰운영에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람료사찰의 주지직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한다면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당해사찰이 필수금액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중단 공금으로 적립해 범종단적인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하겠다.

치는 일에 투자해야 할 때다. 다음은 이 수입이 성보의 보수나 관리에 쓰여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의 성지나 성보로 인해 얻어진 가치는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돈을 내고 관람을 하는 불자건 일반인이건 간에 '아 내가 낸 관람료가 이러한 곳에 쓰여지는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찰 내에 분명한 쓰임처를 밝히는 안내문이든 '판'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바로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신뢰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공지에 위치한 사찰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내부부가 징수하는 공원입장료와 당해 사찰이 관리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한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국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안에 근거하고 있

사람도 17개로 집계됐다. 조계종의 경우 관람료사찰은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문화재보수비로 예치하고 12%를 관람료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중앙승가대 이전불사가 완료될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특별담금 5%를 부담하고있다. 문화재보수비는 지방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 당해사찰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또한 문화재관람료의 결

관람료사찰 신홍사등 59곳

문화재 보수비예치 30% 분담금 17%

7월부터 자율화... '관리법' 제정안 마련

다. 이 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불국사 신홍사를 비롯 전국 59개이며 이 가운데 미산 탐사, 승주 선암사를 제외한 57개사찰이 조계종 소속이다. 문화재관람료는 각 사찰마다 2백원부터 최고 1천 7백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관람료 수입 가운데 불국사가 31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관람료를 받았다. 10억원 이상인 사찰은 관람료 35%를 차지하고 있다. 관람료수입이 1억원을 넘지 못하는

관람료사찰 신홍사등 59곳

문화재 보수비예치 30% 분담금 17%

7월부터 자율화... '관리법' 제정안 마련

정권이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단체장에게 있어 공원입장료가 매년 10%정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반면 관람료는 수년째 등락되어왔다. 문화재관람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율화된다. 문화재보수비예치금과 관람료 결정 등의 권리를 당해사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람료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준엽 기자

현대만평



생태계에 큰 구멍이 생기니...

목어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박근련(朴根蓮·59) 보살은 정신지체자들의 어머니이다. 1백여 정신박약자들의 호주인 그는 진정한 '어머니의 정'을 그들에게 쏟고있다.

"입심경험이 있는 여자원생이 밖에 나가 애인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결혼을 할라 했어요. 얼마된 입장에서 선을 보러 나가보니 상대방은 하반신 지체부자유자였어요. 집에 돌아와 지능이 낮은 그녀에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남자임을 설명하면서 내 아들·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복지촌을 세워야겠다고 발원했습니다." 비록 정박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청

춘이 있음을 볼때면 박원장은 가슴이 저렸다.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었다. 그에게는 1백여 원생 모두가 열손가락처럼 소중했기 때문이다. 박원장은 원생들에게 지립하고 결혼하여 얼마아빠가 되는 기쁨을 안겨 주고 싶었다. 그는 도자기 작업장 수련물실을 지어 원생들 솜씨를 전시하는데까지 이르

박근련 보살

렀다. 그리고는 지난날 3명의 원생 부부를 탄생시켰다. 10년쯤 걸렸다. 그날 밤 박원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보살의 기쁨이었다. "저들은 사회에 섞이면 살지 못하고 다시 바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회에 미칠 영향과 저들 개인을 생각할 때 제 남은 생을 다 바칠 가

치가 있다고 결론내렸어요." 박원장의 "편의 원력"은 60년 사이 버지가 세운 서애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시아버지를 도와 고아들을 보살폈다. 그후 남편 환선무거사(승도 신경정신외과 원장)가 '한국정서장애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고아원을 정박아 보호시설로 변경했다. 황박사의 논문은 삼의 현장에서 다시 꽃피었다. 박원장은 남편의 병원수입을 생필품과듯 재활원에 퍼 넣었다. 천마재활원은 84년 승도암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천마산 기슭에 새 동지를 뿔었다. 박원장은 거기에 1천2백평 규모의 복지촌 건립의 꿈을 가꾸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여기 저기서 한 마디씩 할 때마다 박근련원장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원장은 "편의 원력"은 60년 사이 버지가 세운 서애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시아버지를 도와 고아들을 보살폈다. 그후 남편 환선무거사(승도 신경정신외과 원장)가 '한국정서장애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고아원을 정박아 보호시설로 변경했다. 황박사의 논문은 삼의 현장에서 다시 꽃피었다. 박원장은 남편의 병원수입을 생필품과듯 재활원에 퍼 넣었다. 천마재활원은 84년 승도암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천마산 기슭에 새 동지를 뿔었다. 박원장은 거기에 1천2백평 규모의 복지촌 건립의 꿈을 가꾸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 71호 17·18면 수덕사 기사에서, 한국 선종 분찰의 선포를 이어온 해암스님은 해인사 방장스님이 아닌 해암스님이므로 정정합니다. 당우와 산내일지에서 영령각과 구례암, 청수당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금산대에는 만공스님의 영정과 유품뿐만 아니라 경회전을 의호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조인정사는 샘종각 위치로 옮길 예정임을 밝힙니다. 성보전시관에 전시될 유물로 공민왕이 소장했다가 만공스님에게 전해주었다는 거문고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서공유치원은 수덕사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장의문화에 기여할 '탑림공원'은 '탑림공원'의 오식입니다. 수덕사 기사에서 내용상의 오류 오자 등으로 누를 끼치게된 점 주지스님께 사과드립니다.

공 고
제120회 중앙총회에서 제18교구본사 백양사가 1996년 4월 1일자로 古佛叢林으로 결의되어 백양사 승가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규 승가대학으로서 명실공히 운영하게 되어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공부와 운력, 예불을 일상 수행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뜻있는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학 제: 3년
※교과과정
區分 科 目 期間 區分 科 目 期間
毘奈耶班 沙彌律儀 3개월 修多羅班 華嚴顯談 3개월
縹門 5개월 增一阿含經 15일
佛遺教經論(원주소) 2개월 涅槃經 15일
梵網經(지옥소) 2개월 金剛經五家解 2개월
阿毘達磨班 四集 6개월 楞嚴經 2개월
因明論(명옥소) 1개월 法華經會義(지옥) 3개월
俱舍論 1개월 圓覺經(합허소) 1개월
唯識論(지옥소) 2개월
中觀論 1개월
起信論(원주소) 1개월
■신청기간: 96년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불교학개론(지선스님), 불교예수(이태호교수), 불교문학(이순규박사), 서예(호월스님) 등 각계에 권위있는 전문 강사진의 특강 준비중
■준비물: 가사(오조포함), 장삼, 발우
■구비서류: 승려증(복사)1부, 건강진단서1부, 사진3매
■입방비: 없음(모든 교과는 자체 제작하여 무료로 지급함)
■문의전화: (0685)92-8789(백양사 강원)
불기2540년 4월 1일
백양사 강원
강주혜 권학장 지선

공 고
제120회 중앙 총회에서 제18교구본사 백양사가 1996년 4월 1일자로 古佛叢林으로 결의되어 방장스님을 추대하고자 산중총회를 중헌 제91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1996년 4월 20일 오후2시(음 3월 3일)
2. 장 소: 백양사 향적전
3. 안 건: 총림 방장 선출
4. 참석대상:
1)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2)입명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중무원인 비구
3)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5)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수 없는 자
① 종단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찰의 권리인 또는 관리인
② 법인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③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려
④ 기타 중헌 총법 또는 호계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권이 상실, 정지 또는 제한된 승려.
1996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최지선